

꽃의 섬, 레분섬 (礼文島)

평탄한 지형과 해식절벽의 대조

레분섬은 리시리섬(利尻島)의 서북쪽 약 8 km 지점에 있다. 레분섬은 동서 약 5km, 남북 약 20km로 리시리섬과는 대조적으로 비화산성(非火山性)의 가늘고 긴 섬이다. 전체가 구릉상의 지형으로 레분산(礼文岳)의 표고 490m가 최고점이다. 동쪽은 해안 쪽으로 완만한 경사가 있지만, 서쪽 해안은 많은 부분이 절벽이기 때문에 취락은 동쪽 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북부에는 언색호(堰塞湖)인 쿠슈호(久種湖)가 있다.



모모이와 전망대 부근에서 바라본 서쪽 해안

해안선에서 출현하는 고산식물군락

한랭한 기후 조건에서 섬이 오래 전에 생성되었고, 난지 식물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한지 식물이 남아서, 고산식생이 해발 0m 에서부터 출현한다. 꽃의 부도(浮島)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재, 상림은 적지만, 옛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산불로 소실되거나 예전에 청어잡이가 번성했던 시대에 연료로 벌채되었던 것이, 혹독한 기상조건 때문에 상림으로 재생되지 못하고, 조릿대원이 된 곳도 많다.

바람꽃 (*Anemone narcissiflora*)



매발톱꽃 종류 (*Aquilegia akitensis*)



린털쥐손이풀

서쪽 해안과 동쪽 해안의 차이

남북으로 긴 레분(礼文)섬은 섬의 동서쪽에 있어서 식생이 눈에 띄게 차이가 있다. 서쪽 해안은 겨울의 계절풍이 강하여 해식절벽이 발달하였고, 절벽 위의 사면은 강풍으로 눈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초원이 되어 다양한 꽃이 경쟁적으로 피어난다. 한편 동쪽 해안은 겨울의 계절풍이 서쪽 해안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취락이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쪽 해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단구 위의 사면에는 조릿대가 넓게 퍼져 있다.



남쪽 상공에서 본 레분섬 (좌 : 서해안, 우 : 동해안)

칼럼

리시리(利尻), 레분(礼文) 두 섬의 고유식물

해상에 고립되어 있는 리시리, 레분 두 섬에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고유의 식물이 많다. 리시리히나게시(양귀비과 식물)와 보탄킨바이(미나리아재비과 식물) 등은 리시리섬(利尻島) 고유종이며, 레분킨바이소우(금매화 종류), 레분아트모리소우(개불알꽃 종류), 레분우스유키소우(에델바이스 종류) 등은 레분섬(礼文島) 고유종 또는 변종이다. 이 외 설앵초 등 일본에서의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종류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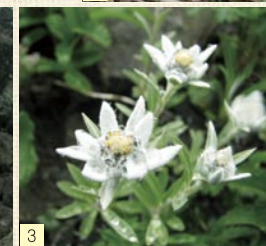


2

- 1 리시리히나게시 (양귀비과 식물) (*Papaver fauriei*)
- 2 레분아트모리소우 (개불알꽃 종류) (*Cypripedium marcanthum* var. *rebunense*)
- 3 레분우스유키소우 (에델바이스 일종) (*Leontopodium discolor*)
- 4 레분킨바이소우 (금매화 일종) (*Trollius ledebouri*)
- 5 설앵초 (*Primula modesta* var. *matsumurae*)



1



3



5



5